



신흥국 제조업 경기 동향의 특징

이아름 연구원

- 9월 2일 HSBC가 발표한 신흥국의 8월 제조업 PMI(purchasing managers' index)¹⁾는 지난달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중국의 PMI는 상승하는 등 신흥국가 간 제조업 경기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 먼저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8월 제조업 PMI가 각각(전월대비) 50.1에서 48.5로, 50.7에서 48.5로 급락함에 따라 향후 경기전망이 확장에서 수축으로 전환됨.
 - 인도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하회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며 그동안 장기적으로 평균 55.4를 기록했었음.
 -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PMI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하회하였으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높은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함.
 - HSBC에 따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국내는 물론 해외 수요도 급격히 줄어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었고 고물가로 내수마저 침체되어 제조업 경기의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
- 8월 브라질 제조업 PMI의 경우 전월 48.5에서 49.4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50 아래에 머물러 두 달 연속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임.
 - 브라질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 감소 및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제조업이 부진함.
 - 또한 환율 방어를 위한 6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개인소비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 경기도 위축됨.

1)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지불가격, 신규주문, 출하정도, 생산, 재고, 고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향후 경기 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여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됨.

■ 반면, 중국 8월 제조업 PMI는 다른 신흥국과는 대조적으로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됨.

- 중국국가통계국이 9월 1일 발표한 중국 8월 제조업 PMI는 7월의 50.3에 비해 0.7 높아진 51.0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을 상회함.
- 더불어 HSBC와 마킷(Markit Economics)이 집계하는 중국 8월 제조업 PMI도 50.1을 기록하였고, 이는 2010년 이후 최고치이며 201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50을 상회한 것임.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핫머니(투기성 단기자본)를 규제하여 위안화 절상을 억제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밝힘.
- 또한 취흥빈 HSBC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제조업 활동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몇 달 동안 중국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함.
- 텡루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PMI가 기준선을 상회함에 따라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7.6%대를 상회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최근 제조업 지표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며 재고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지표 반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함.

■ 참고로 미국과 유로존 8월 제조업 PMI도 중국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3대 경제권(G3) 제조업 PMI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OECD는 올 하반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경우 지난 7월 공급관리자협회(ISM)가 집계한 제조업지수가 55.4로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시장조사 업체 마킷은 스페인, 영국, 스웨덴의 제조업 PMI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가 전월(50.3)대비 상승한 51.4로 2년 2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2일 발표한 주요 7개국(G7) 하반기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영국 중심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유로존도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났다고 밝힘.

■ 한편, 우리나라 8월 제조업 PMI는 47.5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신흥국별, 그리고 신흥국과 선진국 간 제조업 경기회복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글로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해 보임.

(Bloomberg, WSJ 등)